

사노피, 재무 전문가 임현정 전무 신임 CFO 영입

- * 사노피의 최고 재무 책임자로 PwC, 삼정 KPMG, 한국화이자제약 등을 거친 미국 공인회계사 임현정전무 선임
- * 사업 제휴, 예산 관리, 법정 보고 등 재무와 관련된 활동 총괄



2021년 1월 14일, 서울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Sanofi)의 국내 법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대표 배경은, 이하 사노피)가 1월 11일부로 최고 재무 책임자(CFO, Chief Financial Officer)에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임현정 전무를 선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임 임현정 CFO는 미국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 위치한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를 시작으로 국내 회계컨설팅 법인 삼정 KPMG와 한국화이자제약의 세금 재무 담당 관리자를 역임했다. 2013년부터 한국화이자제약의 재무 담당 전무로 근무하며 M&A, 예산 수립, 사업 전략, 세무, 감사 등과 관련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1월 11일부로 CFO로 사노피에 합류했다

임현정 CFO는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골든 게이트 대학(Golden Gate University)에서 MBA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의 최고 경영자 과정(Executive MBA)을 수료했다. 사노피에서 사업 제휴부터 예산 관리, 법정 보고 등 재무와 관련된 활동 전반을 총괄할 예정이다.

사노피는 이번 임현정 신임 CFO의 선임을 통해 자원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여, 사노피의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노피 임현정 CFO는 “환자들의 건강한 삶의 동반자로서 ‘Empowering Life’라는 기업 비전을 실현하고 있는 사노피에 합류하게 돼 기쁘다”며, “최고 재무 책임자로서 사노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헬스케어 분야에서 추구해온 혁신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사노피 그룹은 전 세계 100 여 개국 10 만 명 이상의 직원이 함께 하는 세계적인 헬스케어 기업으로,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고 있다. 한국 법인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예방에서 치료까지, 백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분야를 아우르며 한국인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고 있다.

###

사노피(Sanofi) 그룹에 대하여

사노피는 인류가 당면한 건강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질병을 예방하는 백신과 통증 및 고통을 경감시키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수의 희귀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만성질환 환자 모두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전세계 100 개국 10 만여 직원과 함께 사노피는 과학적 혁신을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구현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sanofi.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anofi, Empowering Life